인천, 공무원 인사고충 시장이 직접 챙긴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투명인사봉투' 운영

인천시가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시장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사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한 의견수렴 창구인 '투명인사봉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인사봉투'는 희망보직 등 본인의 인사문제를 시장에게 직접 개진하는 제도다.

우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외부 인사청탁 방지와 더불어 시장이 직접 간부급 인사를 챙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정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투명인사봉투'의 주요내용에는 본인의 희망보직은 물론 소속 실·국 및 그 외 직위에 대한 후보자 추천, 기타 시정 제안사항 등이 함께 포함된다.

시는 주요 직위 등에 대한 후보자 추전 및 성과 우수자 발탁승진 제안 등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시장과 간부급 직원 간에 소통하는 인사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투명인사봉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밀봉된 상태로 시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며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또한 향후 운영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5급 이하까지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주용·김갑봉 기자 pjy6093@hanmail.net

부평구청 출입기자단, 의정대상 시상식 수상했다.

인천시 부평구청 출입기자단은 22일 부평구의회 구의원 2명을 선정하고 '2022 부평의정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부평구의회 김숙희·손대중 의원이 의정대상을 사진/부평구

남동,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최우수상'

'영세단체의 종부세 고충, 지방세로 해결하다' 발표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시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70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최종 14개 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구는 '영세단체의 종부세 고충, 지방세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지원, 고충 민원 처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동/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인천시의회 '이태원 참사' 재발 막는다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교육공무원의 중요자세, 청렴·진정성·열정"

도성훈 인천교육감, 간부공무원 워크숍서 강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의 중요한 자세는 청렴과 진정성, 그리고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1일 '2022 인천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워크숍'에서 교육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우선 청렴해야 하고 진정성을 갖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노력,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간부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인천교육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모색하고 강화지역 문화체험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교육청 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간부 공무원 124명이 참석했다.

인천/서광수 기자 seolov123@naver.com

부평 문화도시센터, 연말 교양프로그램

27~28일 아트센터서 '문화두레 시민학교 범문현답'

'칼의 노래' 김훈 소설가와 방송 프로그램 '알쓸신잡2'의 유현준 건축가가 문화도시 부평을 찾는다.

인천시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오는 27일과 28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연말 특별 교양프로그램 '2022 문화두레 시민학교 범문현답'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두레 시민학교'는 문화도시부평 추진사업 중 하나로, 시민의 지식 향상과 정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범문현답(凡問賢答)'은 한 해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 새로운 지식·담론 창출의 공적이 있는 명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보통의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행사 제목에 맞춰, 문화, 예술,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준비됐다.

27일에 진행하는 첫번째 교육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의 미래'의 저자이자 '알쓸신잡2', '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 TV 프로그램 출연하며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는 유현준 건축가와 함께 미래의 공간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28일에 진행하는 두번째 교육은 1994년 '빗살무늬토기의 추억'으로 등단해 '칼의 노래', '남한산성', '자전거 여행' 등 주옥같은 작품을 탄생시킨 김훈 소설가를 초청해 올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장편소설 '하얼빈'에 대한 비화, 글쓰기와 삶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부평의 시민성을 높이고, 지역의 건강한 문화시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회당 20명을 선정해 초청연사의 저서(1권)를 선물한다. 문화도시부평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부평구는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부장관 표창

인천지역 유일… 주거·보건·요양 등 7개 사업 추진

인천시 동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통합돌봄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유공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전국 81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자체 모델 개발과 우수한 민·관 협력, 보건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유공 기관에 선정됐다.

구는 올해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거, 보건,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11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7개 사업은 △긴급출동! 동구 돌봄팀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든든한 한끼 배달 △건강검진 △건강매니저 △봄봄봄 건강교실 △스마트한 내집 만들기 등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내년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돌봄 상담 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돌봄 상담을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

연수,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자전거 도로–시설물 정비·공유자전거 등 성과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단체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했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 서울 강남구, 공주시, 김해시, 부산 기장군, 세종시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방자치단체 7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구는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정비, 공유자전거 등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일반 공유자전거 1500대와 전기 공유자전거 600대를 동시에 도입해 월평균 일반자전거 3만5000여건, 전기자전거 1만2000여건의 이용률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매년 일반·전기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도입, 성인대상 자전거 무료교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와 자전거 등록제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재호 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자전거 이용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

미추홀, 새정부 규제혁신 행안부 우수지자체 선정

인천시 미추홀구는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억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새 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총 28개(광역 8개, 기초 20개)를 선정했다.

구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대통령표창에 이어 2년 연속 규제혁신 관련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그간 지역 현안 규제에 대한 혁신 주체로서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TF를 구성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밀접한 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규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

강화, 연말연시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인천시 강화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군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도록 연말연시 특별 복무점검을 펼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복무점검은 △공가·병가 허위사용 △허위출장 △무단결근·무단이석 △음주운전 △대민행정 업무처리 지연 △생활민원 관리 소홀 △성비위(성희롱, 추행 등) 등이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감찰 의뢰하고 대설주의보 등 비상근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비상연락체제도 함께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복무 점검으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복무 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

계양 인성코퍼레이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인성코퍼레이션(주)가 22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구에 기탁했다.

인성코퍼레이션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과 백미 기탁을 하고 있다. 추성호 대표이사는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쳐 2020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에 등록됐다.

추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계양구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말했다.

한편 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3나눔캠페인 따뜻한사랑나누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기부된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